

체코편지 40호 (주후 2021 년 5월 17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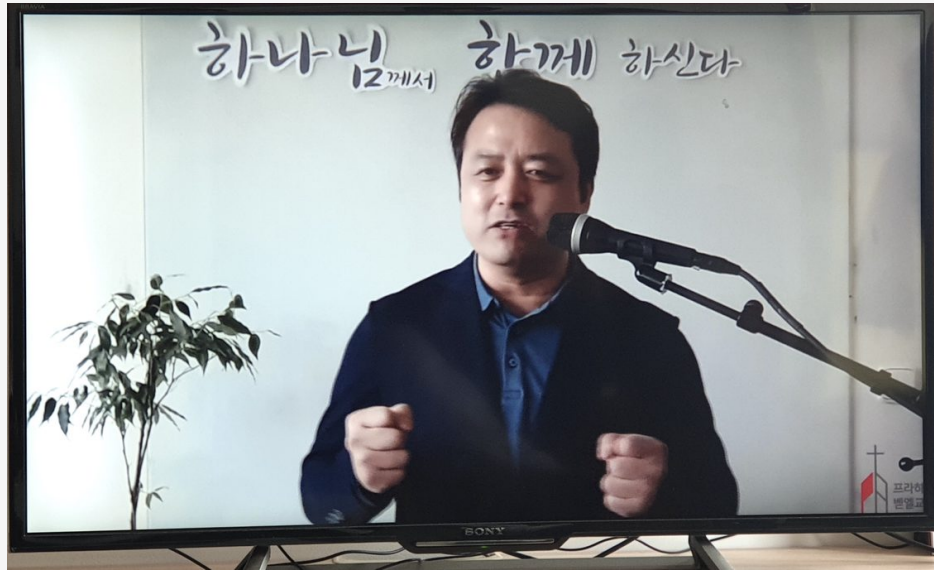
(사55:10~11)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동역자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에 힘입어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매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오가며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하루 평균 600여명 미만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우기 EU산하 국가이고 인구수가 적은 관계로 현재까지 1차 백신 접종자가 3백 60만 명이고 하루 평균 10만 명씩 백신을 맞고 있어 올 가을까지 대부분의 체코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아직까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백신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회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백화점이나 식당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도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고 머지않아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를 통해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둔감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오직 눈에 보이는 백신만을 찾고자 하는 영적 우둔함을 보게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EEMF 워십사역 (공원 전도 및 부활절 연합 예배)

체코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입니다. 음악과 미술 그리고 건축 등은 프라하를 비롯한 체코의 크고 작은 도시와 광장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내의 워십 사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 선교사는 주님께 오랫동안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오다 지난 겨울 부터 워십을 통한 전도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어부들 전도팀과 합류하여 체코어 찬양에 맞추어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말씀을 의지하여 워십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프라하 산상에 올라 두 시간에 걸쳐 워십을 하는 동안 산책을 나온 체코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땅에 워십 사역이 전도와 선교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주일 연합산상예배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워십을 통해서도 체코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EEMF는 워십을 통한 전도와 선교에 체코 자매 형제들과 연합하길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라하 침례교회 소식

동역자 이반(Ivan Plevka) 집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2016년 화요새벽기도 초창기 멤버인 이반 집사님은 3년 전 암 투병중에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항상 모범이었습니다. 이반 집사님을 위해 프라하 침례교회 성도들은 40일 금식기도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세번에 걸쳐 진행해 오던 중 소천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정말 소중했던 이반 집사님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체코 정부는 5월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교회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하며 예배드릴 때 어린이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1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곧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김정희 선교사 한글 사역 및 체코 자매 소그룹 시작

김선교사는 작정기도를 하는 동안 체코 자매들과 소그룹 사역이나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체코 자매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Karina와 Sovie 자매가 한글과 워십에 관심이 있어서 가르쳐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 와서 김선교사 기쁘게 응하였습니다. 대학생인 두 자매는 프라하 침례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특히 소피에 자매가 부른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를 김선교사가 워십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서로 의미있는 만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교회 소그룹실에서 한글 수업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선교사는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체코, 그리스,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 중보기도 동역자님들과 유럽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고 올 가을부터는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확히 응답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부들 전도 사역

매주 목요일 혹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라하, 리또메르 지체 노방전도가 두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소식을 듣고 전도현장에 방문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1인 마이크 노방전도 사역이 체코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쭉처럼 일어나길 기도하는 화요새벽 기도회의 기도와 EEMF 중보기도팀 그리고 체코의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1부는 팀으로 나누어 전도를 진행하고 2부는 광장에서 1인 마이크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프라하 노방전도가 우중에도 예정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비가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맞는 것이 보통입니다.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비가 갑자기 쏟아졌지만 정한 시간을 마치기까지 1인 마이크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맞는 비 정도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원한 봄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환경을 바꾸고 나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총의 표징입니다.



EEMF 1호 선교사 후보생 David Piksa 형제

체코 선교사로 떠나기 전 아내 김선교사와 함께 체코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섯가지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역을 1기 사역 목표로 정하고 기도하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1기 사역을 마무리 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David Piksa 형제가 지난 달 저에게 중요한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건축회사에 다니며 칼세미나, 제자훈련, 전도폭발, 노방전도, 화요새벽기도회, 청소년 사역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함께한 동역자 David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WBT,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와 EEMF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자신으로 하여금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David 형제를 체코 선교의 현지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동안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섬기고 코칭하며 함께했던 터라 처음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속내를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체코에 선교사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체코 및 동유럽선교사 동원 사역)을 생각하니 저희의 동역자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EMF 에서 David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기도하고 지난 17년간 선교 목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간접으로 전달하며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David은 이번 8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서 위클리프 선교학교 언어과정 6개월을 마치고 체코에 귀국하면 정식으로 체코 위클리프 소속 선교사 허입 절차를 밟고 선교지로 나갈 예정입니다. David은 아랍권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David은 개인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과외를 받으며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칼세미나 훈련 마치고 1기 제자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폭발 훈련 교사 및 성경 이야기 교사 사역 등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형제입니다.



EEMF Food 사역 산마늘 장아치

medvědí česnek (메드비에디 체스넥)은 우리말로 명이나물 혹은 산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체코에는 산마늘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채취한 산마늘을 김선교사가 맛있게 장아치를 담아 노방전도팀원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체코 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나눌때 현지인들이 맛있어하는 반응을 보면 역시 음식 사역이 선교 현장에 한 몫 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현장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음식만 잘해도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사와 강점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몰려오길 기도합니다.



첫 안식월(년) 맞아 한국 방문 예정

저희 가정은 2016년 2월 27일 사랑의교회 특새 마지막 날 선교사 파송을 받고 SEED 선교회에 허입되어 벤쿠버에서 40일 ICMS(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훈련을 마친 후 8월 24일 프라하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사로 체코에서 보냈습니다. 초기 3년은 비자 문제, 자녀들 교육, 언어 훈련, 현지 교회들과의 동역, 현지 적응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차에 코로나 19로 인해 1년 반 동안 또 다른 선교 현장을 적응하는 것 같은 기나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외관상으로는 선교의 제약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되었고 그 과정속에서 선교사를 일깨우시고 도전하시며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역자님들의 한결 같은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도 버티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안식월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면서 앞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6월 11일 프라하를 출발하여 8월 26일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하여 찾아 뵙지 못해도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식년 기간 동안 저희가 머물 숙소와 차량을 지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의 빛 선교지에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5월 29일(토) 예수의 어부들 전도팀과 브르노 전도팀이 체코의 두번째도시 부르노(Brno)에서 연합 전도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합 전도 사역과 세미나(커피브레이크 소개)에 브르노에도 커피브레이크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